

Tonight, we want to look at 2 John and 3 John and the book of Jude, all short little one-chapter epistles. The epistles of 2 John and 3 John were of course, written by the apostle John. A situation existed in the early church of itinerant prophets. There were men who traveled and they would come to the various church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or founded. And they would exercise to the churches their gift of prophecy, speaking through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in the edifying of the churches, in the comforting of the saints,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요한 이서와 요한 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짧아서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이서와 삼서는 물론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입니다. 이상황은 순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벌써 자리를 잡았거나 새로 세워진 여러교회들을 여행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과 성도들을 권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Now there were those who would come to the church claiming this gift of prophecy, claiming to be speaking in the name of the Lord who were really false prophets, and they would be giving off with their false concepts under the guise of a prophet. If someone should come in here and say, I'm a prophet of God, you know, and I have a message for the church, we'd send them to Romaine to check out the message.

그중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주장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는 거짓선지자들이었으며 참 선지자의 탈을 써고 와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퍼뜨릴려고 했습니다. 어떤사람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교회에 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 메시지를 조사해보도록 부목사인 로메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But in the early church, there would be these groups, itinerant prophets who would travel around, come to the church, minister to the church. Now there came to be abuses with this. There would come those that would claim to be a prophet speaking for God and they'd say, Thus saith the Lord, Prepare a great steak dinner, mashed potatoes and green beans, you know. Or, In the name of the Lord, you know, they would --they would say, Thus saith the Lord, you know, Take care of this man's needs. Give him money for his purse.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여행하면서 교회에 찾아와 사역하는 순회 선지자들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오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와서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수 성찬으로 저녁을 잘 준비하라.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필요한것을 도와주라. 그 사람의 지갑에 돈을 좀 채워주라" 고 합니다.

So it was necessary in the early church that they write some guidelines for these itinerant evangelists and prophets. And so there was a book known as the Dedike, which means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the didactic. And this Dedike were instructions from the apostles to the various churches on how to judge a false prophet and basically, some of the rules by which they judge them. If they come in, if they came in and ministered, received them and all, accept them, and if they stayed more than three days, then they were false prophets. Started living off the people, you know.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써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다케 (Didake) 라고 알려진것이 있었으며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교훈적인것 이었습니다. 이 디다케는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준 교훈으로 거짓선지자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 에 대한 교훈을 즉 그들을 판단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했을때 그것을 받아드릴것인지, 또 그들이 3일 이상 묵었다면 그들이 거짓선지자들이나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사람을 이용하여 살고있는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And they did have a rule in the Dedike, it said, If they order a meal prepared in the name of the Lord, and if they eat of that meal, they're a false prophet. But if they order it prepared for the poor, and all, and don't partake, then they are to be accepted and honored. If they, in the name of the Lord, you know, order money to be given to them, they were false prophets. Now in the second epistle that John writes, he deals with the truth. Of course, both epistles are very interested in the truth. And in the first one, he deals with those false prophets and their false testimony concerning Jesus Christ.

디다케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들이 주문했을때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은 거짓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도록 주문하고 음식을 먹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공경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가짜 선지자 였습니다. 이제 요한이 쓴 두번째 서신에서 그는 진리를 다룹니다. 물론, 두 서신이 다 진리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서신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거짓증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In the third epistle, he deals with one of the men in the church who did not want any prophets coming in, would not accept or receive any of them because he himself was one of the preeminence. And to Gaius, who the third epistle was addressed to, he told them that he did well in accepting and giving hospitality to these itinerant prophets and evangelists and that there was one, Demetrius, who was coming and he encouraged him to receive him. He was a good man. So behind the two epistles lie these itinerant prophets and evangelists who just traveled around, sort of nomads in the early church. And of course, the theme of both of the epistles is truth.

요한 3서 에서는 교회의 한 사람이 스스로 으뜸이되고자함으로 어떤선지자 도 교회에 오는것을 원치않으며 그들을 받아드리지 도 않는 한 사람을 다룹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서신이며 그가 순회하는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대접하는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데메드리오가 오거든 잘받아드리라고 격려합니다. 데메드리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초대교회에서 그 근처로 여행하는 순회선지자들과 전도자들 즉 방랑객들을 다루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두 서신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So the first or the second epistle of John, he writes to the, he writes addressing himself as the elder. Now that word “elder” could mean aged or ancient. It also was a title within the churches. Each of the churches had their elders who were the overseers of the church, but the Greek word “presbytueros” was originally just used for an aged person. At this point when John is writing, he’s probably over ninety years old, so he’s very qualified to call himself the elder. Both of these epistles, if you’ll notice, are quite short and in both of them, he mentions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he wants to write about, but he will save that until he sees them face to face. He’d rather just talk to them about it than write to them about it.

요한 2 서와 3서는 자기스스로가 장로라고 부르면서 한 장로에게 그서신들을 썼습니다. “장로”란 말은 늙은 사람 혹은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안에서 주는 직함입니다. 각 교회에는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푸레스비투로스 (Presbytueros)” 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이 서신을 쓰고있는 이 때엔 그가 90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장로라고 부를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발견하셨을줄 믿습니다만 이 두 서신은 아주 짧고 요한이 많은것을 쓰고 싶었으나 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때까지 남겨두려고합니다. 그가 글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직접 만나 이야기 하기를 원합니다.

Now in those days, they had a writing material, a parchment, that was 8 x 10 inches, which is close to the 8 1/2 x 11 notebook paper that you grew up in school with. And interestingly enough, each of these little epistles would fit very well on one of those little 8 x 10 pieces of paper. So that’s probably what John originally wrote these on, just some of that original parchments that they had, 8 x 10 inches and he wrote out these little epistles.

그당시에는 글을 쓸수 있는 자료인 양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크기는 8” x 10” 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종이 의 크기인 8” x 10” 에 가깝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두서신이 각각 8” x 10” 종이에 잘 맞을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작은 서신들을 8” x 10” 짜리 양피지에 쓴것같습니다.

But he calls himself the aged,

The elder unto the elect lady and her children (1:1),

Now there is, you know, question as to who the elect lady was, if it were actually a person, an individual, or if he was writing to a church. “The elect lady and her children.” We don’t know. But he said,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1:1a).

여기에서 질문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누구인가 하는것입니다. 그가 한개인에게 편지를 쓰는지 아니면 교회에 쓰는지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가 누군지 알수없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whom I love in the truth; and not I only, but also all they that have known the truth
(1:1);

As I said, the truth is the theme of the epistle.

For the truth's sake, which dwells in us, and shall be with us for ever (1:2).

Jesus said my words are truth. He said,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Matthew 24:35). The truth exists forever. And so I love in the truth. I love in truth. And all they that have known the truth, for the truth's sake.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1:1b).

앞에서 말한것처럼 진리가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1:2).

예수께서 그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진리를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들을 진리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Grace be with you, and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the Father, in truth and love (1:3).

Grace, mercy and peace: these are common greetings in the New Testament epistles. Usually just grace and peace, some of them is added mercy. To Timothy and Titus was added grace, mercy and peace. The grace of God is God's unmerited favor to you. It's getting what you don't deserve, the goodness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hich we don't deserve, yet God bestows upon them. That's grace. Mercy is not getting what you do deserve.

□□□ □□□ □□□ □□□ □□□□ □□□□ □□ □□ □□□□□□□□ □□□
□□ □□□□ □□□ □□ □□□□ (1:3).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들은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사입니다. 통상 은혜와 평강이지만 어떤서신에는 긍휼을 덧붙혔습니다. 디모테서와 디도서에는 은혜와 평강에 긍휼을 덧붙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는것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받지않는것입니다.

David when he prayed, prayed very wisely, “Have mercy upon me, O God,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thy tender mercies blot out my transgressions” (Psalm 51:1). And whenever I pray, I always pray, Have mercy upon me, O God. I never say, O God, I want justice. I’d be burning, mercy, Lord, not getting what I deserve. But God goes one step further, grace, hey; He gives me what I don’t deserve, His love, His goodness, His kindness, His blessings. I don’t deserve them but He bestows them upon me, the grace of God, the mercy of God and peace.

다윗이 기도했을때 그는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 □□ □□□ □□ □□ □□□□ □□ □□ □□□ □□ □□□□□” (시 51:1). 나는 기도할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오 하나님, 공의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불에 타게될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제가 받아야할것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없는데도 그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He said,

I rejoiced greatly that I found thy children walking in truth (1:4),

Boy, if you don’t know that truth is the theme of the epistle, you ought to know it by now. He in each of the verses so far has mentioned it at least once, sometimes more than once. “I rejoiced greatly that I found of thy children walking in truth,”

as we have received a commandment from the Father. And now I beseech thee, lady, not as though I wrote a new commandment unto thee, but that which we had from the beginning, that we love one another (1:4-5).

This is really the essence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commandments of Jesus. Jesus said, “A new commandment give I unto thee, That you love one another.” Jesus said, “By this sign sh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4-35). This is a sign to the world.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1:4).

서신의 주제가 진리인것을 몰랐다면 이젠 알아야합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매절에서 그것을 적어도 한번 때로는 한번이상 언급했습니다. “너의 자녀 들이 진리에 행하는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1:4-5).

이것은 신약성경과 예수님의 계명들의 진수입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35). 이것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Now unfortunately, the church’s witness to the world hasn’t been that good. When churches get in squabbles with each other, when there is fighting and division in the body, it’s a very poor witness to the world. It’s no sign that we’re His disciples. “We know,” John said,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1 John 3:14). How do I know that I’ve really passed from death unto life? God’s love planted in my heart for the brethren. So the commandment that we have from the beginning is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불행하게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증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사소한일로 서로 싸우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싸움과 분열이 있을때 교회가 세상에게 아주 빈약한 증거를 세상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것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일3:1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을 향한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것입니다.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after his commandments. This is the commandment, That, as y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ye should walk in it (1:6).

So we should walk in love. Love one towards another. This is the agape love that’s sacrificing, self-effacing, giving love.

Now he deals with,

Many deceivers are entered into the world, who confess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This is a deceiver and an antichrist (1:7).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1:6).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희생적이고 자신을 낮추며 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그가 다루는것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1:7).

Remember in his first epistle, he said, “Believe not every spirit but try the spirits to see if they be of God. And every spirit that testifieth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of God: But every spirit that testifies not that Jesus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the spirit of antichrist, which is already at work in the world” (1 John 4:1-3). So now again he talks about “deceivers entered into the

that doctrine? “Many deceivers are entered into the world who confess not that Jesus Christ is coming in the flesh. This is a deceiver and an antichrist.”

요한은 그의 첫번째 서신에서 누가 선언하든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아주 흥미롭게 하는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것을 부인합니다. 그의 오심은 영적으로 오신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1914년에 오셔서 비밀장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으며 그는 실제로 육신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하는 방법이 이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무어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Now look to yourselves [or be careful], that we lose not those things which we have wrought, but that we receive a full reward. Whosoever transgresseth, and abideth not in the doctrine of Christ, hath not God (1:8-9).

Though they claim to have the Father, Jehovah Witnesses, yet their denial of Christ is also denial of the Father.

He that abides in the doctrine of Christ, he hath both the Father and the Son. If there come any unto you (1:9-10),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8-9).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말할찌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아버지도 또한 부인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9b-10).

On Saturday morning,

and bring not this doctrine, receive him not into your house, neither bid him goodbye, God speed: for he that bids him God speed is a partaker of his evil deeds (1:10-11).

So when they leave, don't say, Well, God bless you, brother. Or God bless, you don't want God to bless their pernicious ways. They are denying the truth of God that Jesus Christ is God manifested in the flesh and that Jesus is coming in the flesh. They deny that. So don't bid them God bless you. You might say, God bring you to the truth. God bring you out of darkness into the glorious light of His Son, but not God bless you.

토요일 아침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1:9-10).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이 떠나갈 때 형제여 잘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등등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므로 그들을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리로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이 어둠에서 당신을 건져내어 그 아들의 영광으로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Having many things to write unto you, I would not write them with paper and ink: but I trust to come unto you, and speak face to face, that our joy may be full (1:12).

Fullness of joy, that's what the Lord wants for every child of God. The fullness of joy is mentioned by Jesus in John, the fifteenth chapter. It's related to abiding in Him. In the sixteen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it's related to your prayer life. "Ask, that you might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John 16:24).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 fullness of joy is related to our fellowship with God.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And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1 John 1:3-4). Now the fullness of joy is related to just getting together with the body of Christ in fellowship.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지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12).

기쁨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쁨충만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안에 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이 기도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요한일서 에는 기쁨충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일 1:3-4). 이제 기쁨충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Tomorrow we go out to Santa Cruz and we'll be meeting with a lot of the ministers from the Calvary Chapels in Northern California and Nevada, Southern Oregon. We'll be meeting with about, oh, couple hundred of the ministers and some of the staff from the various Calvary Chapels up t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it. Last year when we were up there we had just a fabulous time. After the service in the evening on Monday night last year, we got together in Mike Macintosh's room and I guess we were up 'til 1:30, 2:00 o'clock, just fellowshiping together, talking about what the Lord is

doing and it's just the meeting face to face. You know, we can write letters to each other and share but there's just something about that personal meeting together and the time that we can share together.

내일 우리는 산타 크루즈 (Santa Cruz -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 에 가서 캘리포니아 북부와 네바다 주와 오레곤 주 남쪽지방의 많은 갈보리채플 목사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약 이백명의 목사들과 여러 교회의 직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기대가 큼니다. 작년에도 그곳에 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엔 월요일에 예배가 끝난후에 마이크 맥킨토시 (Mike MacIntosh) 의 방에 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아침 1시반 이나 2시까지 서로 교체하며 주님이 하시는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편지로 나눌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So there's that fullness of joy as we relate to each other the things of Christ, as we talk about the Lord and abou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ithin our hearts and through our lives. Fullness of joy. "I'd like to write other things to you but I'd rather wait until we see each other face to face, that our joy may be full."

The children of thy elect sister greet thee. Amen (1:13).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속에 우리의 삶을통해 이루어지는 주님과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일을 관련시켜 교체할때 기쁨의 충만이 있습니다. "쓸것이 많지만 얼굴을맞대고 볼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니 이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1:13).